

조계종 통합 종단 50년 내일을 위한 핵심과제 7

②역경

조계종은 1962년 통합종단을 출범한 이래 오늘날까지 포교·역경·도제양성을 3대 지표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7가지 핵심과제 가운데 역경 분야를 한국 역경사를 되짚어봄과 함께 교계인사와 전문가 제언으로 점검해 본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말로 바꾸는 역경은 불교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보광 스님(동국대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장)은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세대가 읽을 수 없다. 읽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면 불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성경〉이 라틴어로만 남아있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광 스님은 말과 사유의 관계에도 주목해 "한 문경전을 보려면 중국식 사유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한국인다운 사고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려면 한글경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장경 연구소장 종림 스님은 역경사업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설명했다.

스님은 "고려대장경은 인쇄술을 비롯한 하드웨어와 서지, 편집 등에서 세계 최고의 지식문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불교경전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 역사 설화 사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당대의 '포털사이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종림 스님은 "고려대장경은 서지학적 중요성 외에 문화 콘텐츠의 '보물창고'라 할 만하다. 그만큼 학술적으로 중요하고 오늘날에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어렵지만 잘해왔다

전문가들은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50년간의 역경사업을 "어렵지만 잘해왔다"고 평가했다.

보광 스님은 "포교·역경·도제양성의 조계종

3대 지표 가운데 뚜렷한 성과를 낸 것이라면 단연 역경 분야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로부터 불교를 전래 받은 중국이 한역경전을 갖기까지 1000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해 조선시대 한글 창제 이후 '간경도감'을 두고 경전을 한글로 번역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보광 스님은 "〈한글대장경〉 초역·완간은 대단한 불사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한글대장경〉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지적되는 문제조차도 초역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남 교수(중앙승가대 역경학과)는 〈한글대장경〉이 생산적·학술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글대장경〉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전통사상사〉 등 성과물들이 개별 기관의 원력으로 출간됐으나 종단을 대표할 결과물은 못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학자들이 '참고'만 할

우리말 경전완간·괄목할 성과 인력양성·국고지원 바람직 사부대중과 종단 원력 세워야

수 있을 뿐 '인용'할 전적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광 스님은 "낯지 않은 대접도 환영도 못하는 불사를 동국대가 앞장서서 해냈다. 한글전집으로는 최대규모인 전318권 〈한글대장경〉 불사는 완간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시대, 대장경도 스마트해져야

종림 스님은 "대장경전산화는 누구냐, 언제, 어디서나 대장경 원본을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를 불교문화유산이 더 이상 훼손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정밀촬영하고 디지털정보로 보존해 사이버상에서 영원히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한글대장경〉 전318권 완간을 기념해 열린 봉정식 모습



종림 스님, 보광 스님, 최종남 교수

종림 스님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대장경 초조본을 사이버 상에서 집성하는 일은 대장경 역사의 공백을 채우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우리 민족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과 최고의 목판인쇄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처럼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못했다. 대장경의 르네상스를 전산화로 선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종남 교수는 "대장경 전산화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학자들에게 고려대장경을 활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진행 중인 전산화 작업은 CBETA(中華電子佛典協會) 등에서 인정받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보광 스님도 "대장경 전산화는 시대주류에 따른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스마트폰 등으로 대장경을 서비스하는 단계를 넘어 스토리텔링 등 작업을 통해 무궁무진한 대장경의 콘텐츠를 심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경의 부처님 말씀이 활자를 탈피해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장경 전산화에 진력해 온 종림 스님과 최종남 교수는 통합대장경을 제안했다.

통합대장경은 고려대장경을 중심으로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한문 등으로 기록된 모든 전통적인 대장경과 한글대장경, 일어대장경, 영역 불전(佛典) 등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불전들을 통합·전산화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종림 스님은 "통합대장경 사업을 통해 시대·나라에 따라 달리 만들어진 경전이 디지털 세계에서 국제적인 통합시스템과 글로벌 콘텐츠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통합대장경에는 중국 돈황석굴에서 발견된 필사본, 지리산 화엄사에 1만 3000여 파편조각으로만 남아 있는 신라 화엄석경도 탁본까지도 포함된다.

스님은 "통합대장경이 완성되면 필사본에서 목판본, 활자본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밝혀질 것이다. 디지털 다언어 통합대장경 완성은 불전 전산화의 마지막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남 교수는 "통합대장경을 통해 한국불전의 위상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단이 적극·직접 나서야

역경사업은 어느 불교계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인재부족과 재정확충이 해법이다.

보광 스님은 "역경사 한 명을 키우는데 30년이 걸리고, 20년 밖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역경은 평생을 모두 바쳐야 하는 사업이다. 전문인력 양성도 문제이지만 그들의 신심·원력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문직업으로 인정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남 교수는 조계종 승가교육기금을 확대해 역경 관련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 종단이 역경 관련 기관을 직영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역경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원력만 바로 서 있다면 정부예산 등 국고지원을 통해 역경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역경사업에는 무엇보다 원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성 기자 cetana@hyunbul.com

■조계종 주요 역경 연혁

- 1960년대**
 - 1962년 4월 11일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 개원
 - 1962년 3월 25일 조계종 종헌 확정·공포
 - 1963년 2월 13일 역경위원회 구성
 - 1963년 7월 21일 동국역경원 출범
 - 1964년 4월 동국역경원 문교부 승인
- 1990년대**
 - 1993년 3월 고려불만대장경연구소 발족
 - 1993년 4월 세계전자불전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 1994년 4월 고려대장경연구소 창립
 - 1994년 5월 고려대장경연구소 서울사무소 개설
 - 1994년 7월 〈금강경〉 색인·검색 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발표
 - 1994년 9월 세계전자불전협의회 제2차 회의 주최
 - 1994년 10월 고려대장경 입력작업 추진
 - 1996년 1월 팔만대장경 전산인력원료 기념세미나 개최
 - 1996년 4월 사단법인 장경도량 고려대장경 연구소 발족
 - 1997년 10월 간이 이체자사전 제작
 - 1998년 2월 한글대장경 통합해제 및 분류체계 프로젝트 완료
 - 1998년 4월 고려대장경 한자관리 프로젝트 완료
 - 1998년 5월 팔만대장경 기념 음악 CD 봉정 및 봉정식
 - 1998년 6월 고려대장경연구소 학술세미나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개최
 - 1998년 10월 〈고려대장경 해제〉(전6권) 출간
 - 1999년 10월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21C의 불전전산화 방향 기념세미나 개최
 - 1999년 11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한국불교 정보화의 과제' 개최
 - 1999년 12월 고려대장경 인터넷 서비스 실시(www.sutra.re.kr)
- 2000년대**
 - 2000년 1월 '제6차 EBTI 회의' 인터넷상의 고려대장경2000전산화본 발표
 - 2000년 12월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발표 및 봉정식
 - 2000년 12월 〈고려대장경 이체자전〉 출간
 - 2000년 12월 고려대장경연구소 조계종 중흥 표창 수상(대장경 전산화 완성)
 - 2001년 2월 고려대장경연구소 안양동으로 이전
 - 2002년 5월 〈한국불교 관계논저 종합목록〉 발간
 - 2002년 5월 '제1회 한국불교학술대회'서 대장경 관련 발표
 - 2002년 5월 고려대장경연구소 日 하나조보(花蘭)대학 국제학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 2002년 8월 〈대장경 남북 번역용례 자료집〉 발간
 - 2002년 10월 전자불전연구소 '한글대장경의 성립과 전개' 학술행사
 - 2002년 12월 진각종 소의경론 전산화 완료 CD 제작
 - 2003년 7월 고려대장경연구소 〈화엄사 화엄석경보존복원사업〉 참여
 - 2003년 10월 한국불교관계논저목록 인터넷 검색서비스 개시
 - 2004년 3월 〈한일공동 조조대장경 디지털DB구축 및 영인본 출판사업〉 시작
 - 2004년 4월 고려대장경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대회
 - 2004년 5월 〈고려대장경 감교록〉 출간
 - 2004년 9월 보타사서 디지털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 2004〉 봉안대회
 - 2004년 10월 〈고려대장경 2004〉 출시
 - 2005년 4월 '한국 대장경' 전시회
 - 2005년 5월 〈조조대장경〉 영인본 발간 기념 봉정식 및 학술세미나
 - 2006년 해인사 팔만대장경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2007년 1월 고려대장경조사연구 한글교류회
 - 2008년 7월 '한문불전목록 워크숍' 개최
 - 2009년 1월 20일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발간 및 봉정식
 - 2009년 3월 대한불교학술회의 〈고려대장경을 통한 동화사본의 재인식〉 개최
 - 2010년 6월 '한일 공동 조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 발족식 및 국내 보고회
 - 2011년 3월 '고려 조조대장경 복원간행본 봉정식' 개최
 - 2011년 3월 '한·일 공동 고려 조조대장경 복원간행본 봉정식' 개최(일본 남선사)
 - 2011년 6월 '대장경 :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기념 국제학술대회'
 - 2011년 7월 〈고려대장경과 동화불교문헌대조목록〉(전2권) 출간
 - 2011년 7월 '에니메이션 대장경' 제작 발표회
 - 2011년 7월 '조조대장경 천년 기념 특별전'



2011년 대장경 천년의 해에 공개전시된 초조대장경 모습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이 2011년 3월 일본 남선사를 방문해 초조대장경 복원을 논의중인 모습

(사)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도모집

새롭고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전통 불교승단을 이어갈 종도들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주저마시고 선문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사바세계에 강립하신 석가세존으로부터 내려오는 법맥은 많은 종파와 무수한 문도들로 형성되어 왔으나 저희 종단은 한국불교 증흥조이신 경허대선사로부터 법맥을 이어 온 전 해인사주지 만옹도일 대선사의 법통을 지닌 전통종단의 문도입니다.

그리고 승려의 출가를 인정하는 도첩과 승려증, 주지임명장, 사찰등록증을 발급하오니 신청해주시면 전통조계종의 종도로 따뜻하게 맞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사찰에서 매년 연말영수증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공익법인단체에 등록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희종단에 가입된 회원은 339개사찰과 종도 460명이 등록된 전통종단입니다.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번지 각황사
총무원 | 053)325-0400. 팩스 053)325-4848
Email | sambo111@hanmail.net 다음카페 / 각황사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석용산 합장

공 고

귀의 삼보하옵고
춘하지절 부처님의 가호가 종만하시길 기원하오며 각처에서 수행정진과 포교에 전념하시는 제방 대덕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아뢰을 말씀은 아래와 같이 제 9대, 10대 회장 이 취임식 및 38기 39기 환영식을 아울러 봉행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수히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1.일시 : 불기 2556년 5월 1일 (음 윤 3.11) 화요일 오후 4시
- 2.장소 :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1 동국대학교 내 02-2260-8977)
- 3.문의 : 사무실 02)735-1053

제 10 대 임원진

회 장 : 벽담 학명

수석부회장 : 광혜 무문 사무총장 : 도우 총무부장 : 영대, 보경
기획실장 : 현정 지현 재무부장 : 쾌현 감사 : 청암, 도경

- 1.사회복지 분과위원장 : 해운
- 2.학술 분과위원장 : 성담
- 3.포교 분과위원장 : 능허
- 4.연해(무료결합) 분과위원장 : 지담
- 5.기획 분과위원장 : 지선
- 6.문화 분과위원장 : 원행
- 7.의례 분과위원장 : 명원
- 8.인권통일 분과위원장 : 지행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 동문회 회장 벽담 학명 합장 <직인생략>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오며 대신 장학금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